

“Future climate finance in the era of green transition”
국제컨퍼런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환영사(안)

2026. 9. 2.(수) 09:00, ECC 이삼봉홀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향숙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이화여자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

“Future climate finance in the era of green transition”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본 컨퍼런스는,
금융감독원이 대학과 공동 개최하는 유일한 국제컨퍼런스입니다.

그동안 금융계와 학계,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며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의 미래를 모색하
는 뜻깊은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도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 주시는 한성숙 국무총리님과 유동수 정무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Colin Crooks 주한 영국 대사님,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
님을 비롯하여 함께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N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협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는 폭염과 산불, 가뭄과 홍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환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제와 산업, 금융과 우리의 일상에까지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일은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금융과 기술, 교육과 연구, 산업과 정책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연결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녹색전환의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기술과 산업에 투자할 것인지, 어떠한 혁신에 자본을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기후변화가 가져올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따라 녹색전환의 속도와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금융은 단순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금융의 한 분야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융감독원과 이화가 함께하는 오늘의 논의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금융이 녹색전환에 필요한 자본의 흐름과 리스크 관리의 체계를 만들어 간다면, 대학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며, 서로 다른 학문과 전문성을 연결해 복합적인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금융의 전문성과 대학의 지식과 연구역량이 만날 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창립 140주년을 맞은 이화여자대학교는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이화’라는 비전 아래, 학문의 경계를 넘어 지식과 연구역량을 연결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을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융합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소 2.0 사업에 선정된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를 중심으로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반 자율실험실을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G-LAMP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원’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를 고도화하고 융합인재 양성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금융에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후위험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고 예측하며, 이를 금융의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에 연결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화가 축적해 온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연구역량이 금융계의 전문성과 만나 녹색전환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이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전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결국 우리가 어떤 미래에 투자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 자본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선택과 맞닿아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금융이 그 가능성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며, 대학이 지식과 인재를 통해 그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갈 때, 우리는 기후위기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서로 연결되어,
녹색전환 시대의 미래 기후금융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전환을 앞당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통찰과 해안을 나누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뜻깊고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